

『 도전! 역사 동구벨! 』 예상 문제

- 예선전, 패자부활전, 본선전, 파이널라운드, 최종문제 순으로 진행됩니다.
- 아래 예상문제에서 OX, 객관식, 주관식으로 변형되어 출제됩니다.
- 일부문제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1	화도진축제는 1990년 2월 17일에 정월대보름 행사로 개최된 인천 최초의 축제로 그 이후로 연례행사로 개최되고 있으며 2000년에는 추위로 인한 주민들의 참여가 원활하지 않아 철쭉이 만개하는 5월로 일정을 변경하였다.
2	만석부두 주변에는 6.25전쟁 이후 피난민들이 들어와 '월남 피난민촌'을 형성하였다.
3	인천 만석동에서 태어난 김원흡은 1879년~1881년경으로 출생년도가 추정되는 동구 출신의 독립운동가이다. 1947년 3월 1일자 대중일보에 보도된 이 인물은 영화학교에서 교사 활동을 한 이력이 있으며 3.1운동으로 탄생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연통제와 관련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인천중대사건' 혹은 '윤응념 사건'으로 알려진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국내 군자금 모집 사건에 기록되어 있으며 24년동안 북만주를 방랑하다 67세에 인천으로 돌아왔다.
4	1998년 11월 1일부터 대한민국은 IMF 채무국으로 국가적 위기를 당하여 모든 국가 살림을 축소하고, 작은 동(洞)들을 통폐합하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동구는 시 조례 제421호로 11개 동으로 재편되었다.
5	인천광역시 동구에 있는 행정복지센터는 총 11곳이다.
6	화도진 문화원은 2016년 동구지역의 문화 발굴, 보존 및 발전을 도모하여 동구 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문화예술발전에 이바지하며 주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따라 설립되었다.
7	인천 동구의 첫 탄생은 1968년 1월 1일 법률 제1919호에 따라 구(區)제가 실시되면서 출장소는 폐지되고, 시청을 중심으로 방위에 따라 중구·동구·북구가 신설되었다.
8	중요 무형문화재 제90호 평산소놀이굿은 황해도 평산 지방의 경사국 중 칠성제석거리에서 농사의 풍년, 장사의 번창, 자손의 번영 등 풍요와 풍농, 다산을 기원하며 소 모양을 꾸미고 노는 놀이이다. 평산소놀이굿의 전수교육관은 인천 동구 화수로 43에 위치해 있다.
9	동구 송림동에는 1916년부터 '인천 도축장'이 운영되었으며 일제강점기에 도축법 제정으로 사설 도축이 제한되며 1963년 문을 닫게 되었다. 1990년 희생된 동물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하여 동구청에서 처음으로 위로비를 설치하였다.
10	동이는 동구의 캐릭터로 작지만 당찬 모습으로 도시의 크기는 작지만 유구한 역사와 희망찬 재도약이 있는 동구의 모습을 표현하였다. 화도진을 지키는 수군을 모티브로 당당하고 활기찬 동구의 지킴이다.

11	한국전쟁 휴전 이후인 1954년 인천에는 약 4,500여 명의 천주교 신자들이 있었으나,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답동성당 하나뿐이라 동구 지역 최초로 송림동 성당이 설립되었다.
12	3.1 운동은 일제의 강압적인 식민지 정책에 항거하여 일어난 우리나라의 민족 독립운동이며 동구는 일제강점기시절 인천에서 처음으로 3.1 운동이 발발한 곳이다.
13	동구의 구정방침은 '다시 도약하는 동구', '역사문화로 풍성한 동구', '안전하고 편안한 동구'이다
14	일제강점기에 동구의 학교 체육에 대한 기록은 인천창영초등학교의 전신인 인천공립 보통학교가 조선체육대회의 주최로 열린 전조선야구경기대회에서 1921년 우승, 1924년 준우승을 했다는 기록이 있다.
15	인천 동구에는 황해도 일대에서 행해지던 탈놀이 가운데 하나로 1970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강령탈춤이 전승되고 있다.
16	미림극장은 1957년 동구 송현동에 천막극장을 세워 무성영화 상영을 시작으로 문을 연 문화 공간으로 인천을 대표하는 영화관이다.
17	동구 송현동에 위치한 순대골목거리는 1960년대 수문통 시장이 개장된 이후 항만과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부담 없이 끼니를 챙겨먹을 수 있도록 순대집이 늘어나며 지금의 순대골목이 형성되었다.
18	인천광역시 동구청은 동구 송림동에 위치해 있다.
19	인천 동구의 만석동에 있던 팽이부리 포대는 지도 위의 화도진으로부터 왼쪽으로 무네미 마을과 꽃섬을 지나 길이 끊어진 곳에 돌로 축대를 쌓아 연결시킨 섬에 만들어졌다.
20	인천의 대표적인 새우젓 부두이기도 한 화수부두는 1970년대 중반까지는 조기부두로서 활황을 누렸고 연평도에서 잡은 조기들은 물론 전라도 흑산도에서 신고 온 조기들이 부두를 가득 채우던 시절이 있었다.
21	어영대장 신정희는 조선 말기의 무신으로 고종황제의 명에 따라 외세의 침범에 대비하기 위해 인천에 포대를 설치하였으며, 그 중 하나를 화도진이라고 명명하고 서해항 방어를 맡게 해군사 요충지로 삼았다. 이를 기리기 위해 동구에서는 매년 5월이면 화도진 축제를 개최하고 축성행렬을 하고 있다.
22	송림시장은 1958년 5월 20일에 문을 연 시장으로 일제강점기에 제정된 도시계획에 따라 형성된 가구의 모양을 따라 삼각형 형태로 만들어졌으며 당시 동구에는 중앙시장과 송월동에 있었던 가축시장이 인천의 대표적인 시장이었다.
23	철쭉은 동구의 꽃이며 예부터 선남선녀들의 사랑을 받아온 꽃으로 우리 민족의 은근과 끈기, 풍요와 절개를 나타내는 사랑의 꽃이다. 5월이면 화도진에 철쭉 군락이 만개한다.

24	동구 출신으로 미국 메이저리그 토론토 블루제이스에서 활약 중인 류현진 선수의 모교인 동산고등학교 앞은 류현진 야구거리이다. 야구 테마거리로 류현진의 전시품과 한국 야구와 관련된 사진과 영상자료가 전시되어있다.
25	인천광역시 동구의 전체 면적은 7.19km ² 이다.
26	송림동은 소나무가 우거진 숲이라는 유래에 지어진 이름이다.
27	수도국산은 6.25 전쟁 이후에는 피난민이 모여 들었고 우리나라의 공업화가 진행되었던 1960~70년대 에는 일자리를 찾아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이로 인해 이 산의 비탈에는 판자집이 들어서면서 인천의 전형적인 달동네가 형성되었다. 현재는 '수도국산 달동네 박물관'이 설치되어있다.
28	동구는 동인천역 북광장에 환경전광판 설치하여 유동인구가 많은 동인천역 북광장의 지리적 이점을 이용해 동구에서 발생하는 오염도에 대해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구정 행사안내 및 동구 소개 등 다양한 정보를 지역 주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홍보의 장으로도 활용하고 있다.
29	1990년대 무렵에 생겨난 화평동 냉면거리 골목은 세숫대야냉면 으로 유명하다. 처음에는 보통 냉면과 같은 식으로 팔았는데 주변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냉면 사리를 더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 아예 처음부터 냉면을 푸짐하게 담아 손님상에 올리기 시작하면서부터 냉면 그릇도 엄청나게 커지게 되었다.
30	묘도에는 호랑이와 얽힌 재미있는 전설이 전해진다. 옛날 그곳은 산림이 울창한 외진 곳이었다. 어느 화창한 봄날 부녀자 너덧 명이 나물을 캐러 그곳으로 건너갔는데 작은 굴이 있어서 자세히 보니 그 안에 호랑이새끼 세 마리가 웅기총기 모여 있었다. 그들은 새끼 호랑이들을 신기한 듯 정신없이 지켜보는데 어미 호랑이가 나타났다. 부녀자들은 혼비백산해 바구니를 내동댕이치고 집으로 도망쳤다. 다음날 아침 부녀자들의 앞에 나물 바구니가 놓여 있었는데 자신의 새끼를 해치지 않은 고마움의 표시로 놓고 갔다는 이야기다.
31	인천광역시 동구의 비전은 '살고싶은 도시 활기찬 행복도시 동구'이다.
32	만석부두 인근에 건설된 인천판유리공장은 1957년 운크라(UNKRA,유엔한국재건단)의 지원을 받아 건설한 공장이다. 대한유리공업기성회가 불하를 받아 1957년 9월 30일 준공식을 가졌으며 유리는 비료, 시멘트와 함께 당시 3대 기간산업 중 하나이다.
33	다음은 동구의 어로금기 중 하나로 '조업중' 금기이다 "어부들은 고기 잡는 배 위에서도 행동과 말을 조심해야한다. 휘파람불기, 신발이나 금속성의 물건(칼이나 손가락)을 물에 빠뜨리기, 특정 사람(시체나 피) 및 동물을 입에 올리는 행위 등이다. 이는 귀신을 부르고 사고가 날 불길한 징조로 여겨진다."
34	과거 수도국산 솔빛아파트로 오르는 초입에는 몇 개의 우물이 있었는데, 그 중 골목 안에 있던 해방우물이 유명했다. 부근에 길이 20미터 정도 되는 층층대가 있고 일제강점기를 청산한 것을 기념한 의미를 담아 주민들은 1947년 이 것을 개축하면서 '해방우물 기념비'를 세웠다.

35	배다리는 그 옛날에는 배가 닿았는지는 몰라도 당시에는 선박 출입한 흔적은 없고, 다만 쪼개진 목선쪽으로 다리를 놓아서 배다리란 이름이 붙었다는 것이다.
36	인천 만석동에 있던 제분 공장인 풍국제분은 1935년 3월 공사가 착공되어 1936년부터 생산을 시작하였다.
37	1883년 6월 16일 창설된 인천 해관에서 인천감리서로 보낸 공문서 12종으로 그 중 2종은 고종 21년(1886) , 10종은 고종 23년(1888)에 작성된 것이다. 인천의 영문표기를 'JEN CHUAN'으로 조선의 영문표기는 'COREA'로 적고 있다. 현재 희귀자료로 동구 화도진에 소장되어있는 이 문서는 '인천해관문서'이다.
38	인천 최초의 야구단은 일제강점기 항일학생운동의 주축이 되었던 경인기차통학생친목회를 중심으로 창단되었는데 일본인 야구팀들과 경기를 가졌다가 1922년과 1924년 일본인 심판의 편파판정 시비로 해체의 위기에 놓였으나 이후 고려야구단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1930년대 초까지 그 명맥을 유지했다.
39	화수부두 애기씨 서낭 관련 이야기이다. 마을을 지키는 서낭이 있듯이 배에는 배를 보호하는 배서낭이 있다. 배가 조난을 당해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도록 선주들은 용골 앓힐 때, 배를 내리거나 수리했을 때, 첫 출어 때, 풍어나 흥어 때, 마을 당제 때, 명절에 배서낭에게 배와 선원의 안전, 풍어를 기원하는 고사를 지낸다.
40	갈매기는 끈질긴 힘과 깨끗하고 단아한 모습으로 높은 이상을 품고 멀리 날며 희망을 주고 바다와 접하고 있으며 동구를 상징하는 아름다운 새이다.
41	1866년 초에 흥선대원군은 천주교 금압령을 내려 프랑스신부와 조선인 천주교신자 수천 명을 학살하였다. 이 박해 때 프랑스 선교사 9명이 처형되었으며 이를 '병인박해'라고 부른다. 병인양요는 병인박해 이후 프랑스 극동함대는 로즈 제독의 지휘 아래 물치도에 정박하며 강화도를 침략했던 사건이다.
42	이길용은 동구 출신의 언론인이며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우승 시상대에 오른 손기정 선수의 사진에 일장기를 지운 사건으로 일제로부터 강제 사직을 당하고 4차례 옥고를 치른다. 1945년 해방 후 조선체육동지회 결성에 적극 참여해 조선체육회를 부활시켰다.
43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근대 언론은 1881년 부산 개항장에 진출한 일본인들이 설립한 조선신보이다. 이 신문은 일본 상인들의 이권을 대변하기 위해 발간된 일어 신문이었다.
44	송림동에 솟은 봉우리 중 하나로 푸지게 살찐 부처가 낮잠을 자듯 드러누운 산동네라 부처산이라 부른다.
45	광덕사는 동구 지역의 대표적인 불교사찰로 인천 동구 화평로 14번길 14에 위치한 태고종 사찰로 일제강점기에 도심에 세워진 전통 양식의 사찰 건축물이다.
46	동구 창영동에 위치한 인천기독교사회복지관은 19세기 말 미국 감리교회 선교사들이 사용하였던 합숙소 건물로 1993년 7월 6일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47	1876년 일본과 체결된 강화도조약 이후에는 강화보다 인천과 부평 연안의 방비 문제가 급부상하며 1878년 8월 고종은 인천과 부평 등지에 진을 창설하고 돈대를 설치하여 방어하고자 화도진과 연희진을 설치하였습니다. 화도진 설치 이후 두 장으로 이루어진 회화식 지도첩의 이름은 '화도진도'이다
48	수도국산에는 산신령과 물애기씨가 있는데, 송림동 일대의 무속인들에게 산신령보다 물애기씨가 더 유명하다. 가뭄을 예방하고 물을 풍족하게 사용하는 것은 인간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기에 물을 끌어 와 정수를 하며 물을 관장하였다고 한다.
49	작약도는 조선시대에 일본인 화가가 섬을 사들인 후에 이 섬의 형태가 마치 '작약봉 봉우리 모양'이라며 붙인 이름이다. 2020년 작약도는 환원되며 '물이 달고 물치 치받다'라는 뜻에서 순우리말인 '물치도'로 이름을 변경하였다.
50	만석어촌마을은 본래 묘도가 있던 곳이다. 묘도는 조선시대 만석동에 위치해 있었으며 조선후기에 묘도포대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1938년 대규모 매립이 진행되면서 사라졌다.